

‘푸틴 정적’ 나발니 사망... “러 반체제 운동의 종말”

반체제 운동 주도 30년 이상 징역형...2021년 1월부터 수감 러 야권·자유 반전 활동가들, 나발니 사망 의문 제기 정부 비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던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16일(현지시간) 시베리아 감옥에서 돌연 사망했다.

유럽 전역에서는 러시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추모 집회가 열렸고 러시아 내 야권 인사들과 나발니 지지자들은 그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크렘린궁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에서 반체제 운동은 끝났다는 비판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연방 교도소 당국은 이날 나발니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 아말로네츠 자치구 제3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다”며 의료진이 응급조치했지만 나발니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발니는 2011년 창설한 반부패재단을 통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다.

반부패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나발니본부 등

그가 설립한 단체는 러시아 당국에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됐다.

그는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1월부터 복역 중이었다.

푸틴 대통령의 5선이 유력한 대통령 선거(3월 15~17일)를 한 달 앞두고 급작스럽게 전해진 사망 소식이 나발니의 측근들은 그의 최근 건강 상태가 좋았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레오니트 솔로비요프 변호사는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에 “이를 전(14일) 나발니를 면회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들과 해외 지도자들도 러시아 정부의 탄압이 나발니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지방법원은 전날 나발니가 화상으로 열린 심리에 참석했으며, 건강상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나발니는 판사에게 “당신의 많은 월급으로 나의 계좌를 따뜻하게 해달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제3 교도소가 있는 하르프 지역의 공공감독위원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에 놓인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진이 추모객들의 촛불과 꽃다발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나발니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했다. /연합뉴스

장 다닐라 곤타르도 “나발니에게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지역 병원 관계자는 나발니가 쓰러진 뒤 7분 이내에 구급 요원들이 도착했고,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발니의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사인을 규명해야 할 책임은 의료진에 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들은 나발니가 중독으로 인한 혈전 문

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증세로 쓰러져 독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귀국하자마자 구속기소돼 제대로 몸을 회복하지 못했다.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이 부패에 의존하는 취약한 개인 통치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1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비밀 궁전’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나발니의 죽음은 러시아에서 정치적 반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나발니는 러시아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를 이끌었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푸틴 대통령과 그의 협력자들을 압박해왔고, 감옥에서조차 변호사들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

그런 그의 죽음은 아직 푸틴 대통령에게 저항하고 있는 러시아 야권과 진보적 반전 활동가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진단했다.

러시아 일반 시민은 정부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에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금지했다. 텔레그램 정보만 정보를 얻는 통로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성 여부 가린다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시작

50년 넘게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은 정당인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역사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AP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5명의 국제 재판관과 관련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19일(현지시간)부터 총 6일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이스라엘의 점령 적법성과 관련해 ICJ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하지와 관련해 ICJ에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ICJ의 판단을 구하려는 상황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

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146개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고,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인은 50만명이 넘는다.

동예루살렘에는 20만명의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는데 이곳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새로운 집을 짓거나 기존 집을 확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여론은 이스라엘에 불리한 상황이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동예루살렘 병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19일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의 대규모 합병을 통한 영토 정복 금지를 위반했고,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

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심리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점령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철수한 지역이다.

재판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술이 끝나면 51개 국가와 아랍연맹, 이슬람협력기구, 아프리카연합 등 3개 단체도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CJ 판결이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판 결과가 국제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니 교수는 “이 사건은 전쟁과 이미 매우 양극화된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에 불만하고 당혹스러운 수많은 비난과 혐의, 불만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CJ가 이스라엘 점령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ICJ는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일부에 걸쳐 건설한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명령했으나,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무시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 거부

총리 제출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제출한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스라엘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을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한 뒤 팔레스타인과 각각 개별 독립 주권 국가로 공존해야 한다는 ‘두 국가 체제’를 지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조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 옵션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굴복 안해’ 트럼프 운동화 2시간 만에 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운동화가 출시 몇시간 만에 품절됐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소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운동화는 전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스니커즈 박람회서 직접 소개한 것으로 성조기 장식이 금색으로 된 스니커즈이다.

이 운동화는 같은 날 ‘갯 트럼프 스니커즈 닷컴’ 웹사이트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 하이힐이라는 이름으로 399달러(약 53만원)에 ‘특별한정판’이란 소개와 함께 1000켤레가 출시되자마자 수 시간 만에 동났다. /연합뉴스

판매업체 측은 이날 수량이 두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판촉은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이 트럼프 측을 상대로 한 사기대출 의혹 재판에서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가운데 나왔다.

‘갯 트럼프 스니커즈 닷컴’은 ‘T-레드 웨이브’(트럼프-공화당 물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컫는 ‘POTUS 45’(45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단 운동화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 장식이 있는 향수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